



2017년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이선주 연구원

Swiss Re는 2017년 사회 환경, 정치적 요소, 기술적 요소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장·단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20개의 리스크를 소개함. 그 중 인플레이션 회복,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탄저균 등의 전염병 확산과 클라우드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리스크 등이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임. 그 밖에 스트레스와 피로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한 근로형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Swiss Re¹⁾는 사회 환경, 정치적 요소, 기술적 요소 측면에서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에 장·단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20개의 잠재적 리스크²⁾를 소개함
 - 이 중 인플레이션, 보호무역으로 인한 국제적 시장접근성 저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전염병 확산, 클라우드 리스크(cloud risk) 등이 2017년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 평가됨
- 거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회복,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의 금융시장 및 정치적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 회복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목(long tail business)³⁾의 보험금과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해약률이 증가할 것임
 - 금리인상에 따라 저축성보험 계약자들이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국의 국수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험산업을 포함한

1) Swiss Re(2017), "SONAR New emerging risk insights"

2) 본고에서 소개하는 7가지 리스크를 제외한 13가지의 리스크에는 규제 분열, 진통제 오용, IoT 활용에 따른 사이버공격, 정보변화, 인조잔디의 발암물질, 인공지능 관련 법제정, 동물항생제 남용, 혁신적인 암 치료, 부동산 가치의 불확실성,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E-Sports, 현금 없는 사회, 정밀의학의 발전 등이 있음

3) 예를 들면,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발생시점이 아닌 배상책임손해 청구시점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이 장기간에 걸쳐 귀속되는 특징을 보임

모든 산업의 국제적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어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산효과 감소로 인해 보험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보험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장격차(protection gap)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험산업의 노력을 저하시킬 것임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탄저균 등의 전염병 확산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리스크 등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임

- 기후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식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뭄으로 인해 농업, 에너지, 임업 등의 산업부문에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및 구조물 균열 등의 재산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영구동토층 해빙 현상으로 인한 탄저균(anthrax bacteria) 확산⁴⁾은 캐나다와 같이 지역적으로 동토층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게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산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 탄저균과 같은 전염병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현되므로 예방이 매우 어려워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산업에 상당히 큰 손실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저렴한 비용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접근성이 용이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 특히, 슈퍼 클라우드와 같이 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데이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기업 운영 중단은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직종에서 스트레스와 피로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실 등과 디지털화로 인한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직종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함⁵⁾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와 Deliveroo, Uber, Lyft, AirBnB 등의 운송, 교통, 숙박부문 디지털 플랫폼 발달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일을 맡기는 형태인 킥 경제(gig economy)⁶⁾ 부상
 - 공유경제 발달로 사회보장 시스템도 단기보장 형태로 변화할 것이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경우도 1일 또는 1시간 등의 단위기간 형태의 보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kiri**

4) 2016년 8월에는 고온현상으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75년 만에 탄저병이 발생하여 순록 수천 마리가 폐죽음을 당하고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마을 주민이 집단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함
 5) 2009년 리우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항공 447편은 기기결함과 더불어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조종사가 부조종사들에게 운항을 맡김으로써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으로 결론남
 6) “zero-hour concept”(0시간 계약직)으로 근무시간과 조건을 정하지 않은 일종의 비정규 노동계약 형태임